

우리 국악, 우리 문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강남문화재단과 MOU를
맺은 국악방송
채치성 사장

국악은 세련되고 섬세한 음악이다.
아주 정적인 듯 과감하다. 한국인
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힌 음악'이
라는 억울한 편견을 깨고, 이제 곧
우리 음악 국악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국립국악원 예원당이 무려 700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메워졌다. 차마 좌석을 마련하지 못한 관객들은 아쉬움의 발걸음을 해야만 했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 언제나 그렇듯 공연의 시작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무대는 오로지 우리 음악을 선보이려는 연주자들로 구성됐고, 관중석은 오로지 우리 음악을 듣고자하는 관객들로 채워졌다. 그렇게 공연은 시작됐고, 2시간여 동안 그들은 서로 끊임없는 교감을 주고받으며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다. 오직 '국악'이라는 위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안고, 오직 '국악'만이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감성과 정서를 품고.



채치성 蔡致誠



66 **순수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방송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99**



한 길 국악인생, 그가 걸어온 40년 / 그날을 회상하는 채치성 사장은 여전히 들뜬 모습이었다. 국악인생 40년, 그리고 국악방송 개국 이래 15년을 오직 '국악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달려온 그의 기에 이날 공연은 더욱 간절했고 애절했다. 어쩌면 재직 중 마지막일지 모를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자신의 진심이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게 닿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1970년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한 그는 이후 중앙대학원과 한양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전공했다. 음악가 집안에 태어난 탓에 어릴 적부터 국악을 비롯한 각종 장르의 음악을 접한 그는 그 어떤 장르보다 국악이 가진 리듬과 선율에 매료됐다.

"사람들은 음악을 양분법적으로 나누곤 하죠.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으로 말이죠. 하지만 음악이라는 장르 속에는 무수히 다른 각각의 형태가 존재하죠. 그중에서도 우리 전통 음악인 국악은 그 어떤 음악적 장르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매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매력이 지금껏 제가 국악인으로서 한길을 고수하며 살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끝에 맺히는 작은 한숨 속에는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했다. 아직은 멀고 먼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대한 갈증, 그가 끝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그것이라.

대한민국,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 / 그조차 이토록 오랜 시간 국악의 길을 걸어 줄 줄은 몰랐다. 대학을 졸업한 해, 그가 선택한 것은 국악인이 아닌 교육자의 길이었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그 또한 그의 인생에 주어진 큰 미션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우연치 않게 KBS에서 음악 PD 공채를 뽑는다는 정보를 접했고, 그곳에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신 선배가 재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악이 가장 인정받아야 할 모국에서 국악이 소외된 시절, 우리 국악의 세계화라는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 온故 이성천 교수다. "저에게는 생애 마지막까지 회고하고 회자할 선배이자 스승이시죠. 그분이 간직하셨던 국악에 대한 애착과 믿음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생애 그토록 원하셨던 소원과 지금 저의 소망이 한 지점에 있기에 단 한순간도 제 국악인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국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 음악의 발전을 넘어 한국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 국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인정받을 때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무한함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국악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 방송 만들 것 / 그는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특별한 꿈을 꾸고 있다. 어쩌면 그는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세계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오직 우리 문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이라는 아시아 속 작은 나라가 키워낸 위대하고도 고귀한 문화를 모르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일. 그는 그것이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남은 생애 동안 해내야 할 업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칭해 문화강국 혹은 문화관광의 나라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는 너무나 적습니다. 국내에서 지인되는 수백 개의 TV채널 중에서 정작 한국 문화의 정통성을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악뿐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축, 우리 미술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정서, 우리 춤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한과 슬픔 등 순수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현재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는 국악방송의 채널의 전국화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11개 권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국악방송이 전국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0여 개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가 바라는 대로 전국의 국민들에게 국악을 접할 기회를 선사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악을 듣고 자라날 수 있도록 유아동용 콘텐츠까지 만들 정도로 국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두 번째 그의 목표는 우리 전통문화를 24시간 방송하는 한국 전통 문화 IPTV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청 가능한 한국 전통 방송을 통해 우리 예술이 담고 있는 우수성을 만 천하에 알리는 일. 어쩌면 이 목표는 그가 남은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꿈이자 비전이자 그만이 풀 수 있는 위대한 과제일 것이다.

국악방송은
대한민국 전통 및 창작 국악 보급 교육과 대중화를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공영 라디오 방송국으로 2016년 2월부터 강남문화재단과 MOU를 맺고, 한국 문화예술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